

## 평강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

요한복음 20:11~23

### 【인도자를 위한 예화】

나는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1:12)라는 말씀이 심령에 꽂혀 예수님을 영접했다. 나는 여섯 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자랐기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이 약속이 참 든든하고 감동적이었다. 나에게 하늘의 아버지가 생겼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 된다는 이 말씀이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 중고등학생 시절 내내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다. 아버지가 없다는 것에 대한 허전함이 종종 내 마음을 침체에 빠뜨렸는데, 점차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누리는 기쁨이 나를 사로잡기 시작했다. 세상 그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주춧돌 위에 내가 서 있다는 것,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확신이 내 인생을 소망과 환희와 평강으로 물들였다. 성경 구절이 영혼에 침투해 깊이 새겨지면 그 구절은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의 생각과 감정을 송두리째 바꾸어 간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했고, 내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다. - 박관수, 「행복한 말씀 묵상 학교」(두란노)

세상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게 평강(평안)을 가져다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보세요.

### 【배경 이해하기】

요한은 공관복음의 기자들과는 다른 관점으로 부활하신 예수와 제자들과의 만남을 세밀하게 설명합니다. 첫째, “안식 후 첫날 저녁때”(19절)로 만남의 때에 대해 자세히 기록합니다. 이는 병행 절인 누가복음 24:36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둘째, 제자들이 모여 있던 다락방을 “문들을 닫았더니”(19절)라고 증거하며, 닫힌 문들을 신비하게 통과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체를 강조합니다. 셋째,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20절)라고 기록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강조합니다. 요한의 기록들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영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처럼 육신까지도 부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완전히 반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확인하고 기뻐했고, 주님이 선포하신 “성령 받으라”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결단합니다.

### 【말씀 나누기】

#### 관찰과 묵상 I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랍오니’(선생님)라고 부르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16~17절)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시며, 제자들에게 가서 곧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것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속해서 머무를 수 없는 부활체를 가지셨고 곧 승천하셔서 완성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의 모든 사역이 중단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9절). 그래서 그녀는 무덤 밖에서 울면서 예수의 시체만 찾아다녔고, 부활 후 자신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 ‘랍오니’라고 부르며(16절), 드디어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다. 예수님도 마리아를 ‘여자여’(13절)에서 ‘마리아야’(16절)라고 친밀히 부르셨고, 그녀가 이전에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처소를 예비하시고(14:3), 보혜사 성령을 보내기 위해(14:16) 다시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한다는 말씀들이 기억난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구속사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건이며, 예수님이 마무리해야 할 구속사의 마지막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 적용과 나눔 I

**일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전하기 위해 내게 필요한 태도, 그리고 기도는 무엇일까요?**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마리아에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세상적 편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는 편견으로 목수의 아들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생각과 기준에 가두고, 나의 이상형에 맞추려고 하는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아버지 집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고, 매 순간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합니다.

## 관찰과 묵상 II

**두려워서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19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20장에서 ‘평강’이란 단어를 세 번이나 반복하며(19, 21, 26절), 예수님의 부활 선포를 강조합니다. ‘평강’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부터 예수님 당시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인사말 ‘샬롬’의 번역입니다. 평강은 사람을 만났을 때, 헤어질 때, 또는 이웃을 방문할 때 등 다양하게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평범한 인사말의 수준을 넘어 예수님의 구속사적 사역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평안’은 보혜사 성령과 관련해 세상의 평안과는 다른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14:26~27)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환난을 이기는 담대함을 줍니다(16:33).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 적용과 나눔 II

**환난과 영적 공격을 당할 때, 참된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지 나누어 보세요.**

‘평강’(평안)은 성령의 사역과 관련 있습니다. 평안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갈 5:22)로, 성령이 ‘평안’의 매는 줄이자 하나 되게(엡 4:3)합니다. ‘평강’은 성령 안에서 소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요소(롬 14:17)이며, 기쁨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평강’(롬 15:13)을 연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평강’을 선포하신 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22절)을 통해 성령과 평강을 주시는 것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은 우리의 사역을 돕고 위로하며, 중재하십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환난 속에서도 평강을 누리며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